

동생 恩 이



이 혜 경

<경기도화성군남양면남양종합고등학교>

「불이 났어요. 불이요! 바로 길 건너 세탁소에서요!」

아래층에 세들어 사는 문방구 집 주인이 엄마가 내게 달려오며 이르는 말이 었다. 길 건너 세탁소라지만 바로 코가 닿는 앞집이었다. 자동차 한대가 겨우 빠져나갈만한 좁은 골목길이니 말이다.

시장을 보아오던 바구니를 주인이 엄마에게 떠맡긴 나는 집을 향해 달음박질을 쳤다. 소방서차를 부르는 다이얼번호가 뭐였던가 뭐였던가, 머릿속은 방향도 없는 아득한 곳을 달리는 느낌이 었다.

검은 연기는 머리물 푼 형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다. 불내가 바람결을 타고 벌써부터 코끝에 닿았다.

불이 났다하던 우선 불바다에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 투성이다. 나는 드여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물이 질척거리는 흙탕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집 쪽을 향하였다.

큰애, 재곤이가 어찌하고 있는지

가 제일 걱정이 되고 궁금하였다. 큰 애는 바로 불이난 세탁소 옆으로 조그만 인쇄소를 차리고 있었다. 그 인쇄용 기름하며 쌓아놓은 종이더미, 부스러기들이 모두 인화되기 쉬운 것들이니 더 걱정이 되었다.

목구멍이 칼칼하게 쓰리고 막혀 왔다. 쇠의 붉은 녹을 태우면 이런 내음이 날까, 역겨로도 매캐하였다 불길은 검은 그으름과 함께 번져 오르고 병원차가 몇대 사람들 틈을 비집어 멈춰섰다.

「불에 다친 이 까지 있는 모양이구나」

결의 사람이 하는 혼잣말에 나는 가슴이 뜨끔 내려앉음을 느꼈다. 아니다 다를까. 세탁소 주인 박씨가 머리털이 온통 그슬리고 데인 모습으로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다. 실신한 것같이 보였다.

“재곤아, 재곤아. 어디 있냐?”

나는 크게 소리를 질러 큰 애의 이름을 불러댔다. 인쇄소로 불이 옮겨 붙은지 이미 오랜듯 싶었다.

거의 다 불길에 사뭇지고 “형철 인쇄”라고 붙여 걸었던 간판이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혹 낮잠이라도 자다 이 난리를 만난거나 아닐까.

누가 이 경황에 잠이든 남의 집 식구 생각이 나거나 했을 것인가 싶었다. 대뜸 어지럼증이 일었다.

”엄마, 재곤이 형 세탁소 사람 몇하고 파출소에 갔어, 몇가지 조사할 것들도 있고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같아”

둘째놈 재형이가 나를 불안의 그늘에서 일깨웠다. 재형이는 이제 대학교에서 돌아온 길이었는지 아침에 입고 나간옷 그대로였다. 어찌서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보게 될 때 좀 더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 재형이는 바위만큼 든든하게 앞을 막고 서있었다.

소방서 차가 큰 길까지 세 대가와 닿아섰다. 호스를 탄 짧은 들쭉기가 뻗어나갔다. 호루르기 소리가 귀에 어지럽다. 이젠 나도 쉬이어

분구경이다. 불길은 곧 잡히기 시작하였다. 가끔 몽땅이 허연 연기가 물에 썬 콧김을 내면서 찾아들기도 했다.

꽤히.

연이어 붙어있던 다섯 채의 가겟터는 하루의 반나절도 걸리지 않고 제로 화하였다. 세탁소, 인쇄소, 담배가게, 숯물집, 그리고 문을 닫아두었던 빈 가게. 그들 가게는 그곳에 오뎨조뎨 붙어있던 그대로 그 순간 모습을 드러내보였다.

불은 도무 태웠다. 여윈 벽대 처럼 가늘고 휘인 시멘트 골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군에서 제대하여 8개월 여를 두위도식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지 1개월 남짓이나 될까 한 재인이. 그보다 곧 등쪽 마감일이 닥쳐오는 재형아의 등 목급 마련. 또 신장염으로 열흘 쯤 누워있는 남편.

몇 해나 걸린 신고 끝에 가겟터를 기우 작만하여 그것을 다시 다섯 채의 집포로 나누어 세를 놓았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빛도 청산하지 못한 채 재로 화한 것이다. 혼자서 안차게는 내색하지 않으며 꾸니왔고 절약해온 날들이었는데, 성달이지 남편만이라도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퉁퉁 나다니도 내 걱정은 달할 것 같았다.

불은 세탁소의 실내였다. 세탁소용 대형 무순 기계인가의 기계조작의 불실로 인한 화재였음이 드러났다.

꽤히 대문만 나서면 눈앞으로 달려와 닥닥뜨리는 폐허의 자리를 나는 얼굴을 돌리고 지나치곤 하였다. 언제 다시 저 가겟터를 손질을 해 쓸만한 가겟자리로 내놓을 수 있을 까고 딱딱했다.

내가 육학년이고 두 살이 아래인 동생 은이가 사학년일 때 나와 은이는 곧잘 불장난을 하곤 했다. 고물거리며 타오르는 주황빛 불심지의 어린 불꽃의 혀를 주의깊게 보노라던 마음이 들떠 올랐다. 만일 만져도 태이지 않는다면 손으로 움싸 움켜쥐고 싶었다. 특히 잔디밭을 태우는 불은 야금야금 그 타는 면적을 넓혀가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다. 한일 한일 잔디의 잎을 먹어치워 검게 그슬린 자리를 드러내놓던 불꽃.

그 해 겨울 그에 나와 동생은 공동묘지의 자리를 천여평 가까이 태워먹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물론 전날 저녁의 우리들의 불장난은 들만의 단단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 그 소소한 불장난은 작기만 한 일이 아니었다.

“옛저녁 어떤 녀석들이 불장난을 했었던 게야. 불씨가 남아있다가 밤새 옮겨 붙어서 잔디가 홀랑 그슬렸다는군, 쫓, 큰 불로 번지지 않았기 망정이지 공동묘지 잔디를 홀랑 벗겨내는 놈들이 없나, 원, 참!”

아버지는 그 화재의 불씨가 바로 당신의 두 딸임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조그만 불꽃은 숨이 완전히 진듯 하다가도 한자락 바람 끝만 잡아도 숨을 되일으켜 살아난다. 아마도 그 겨울의 불도 그렇게 하여 일어났던가 생각이 뜨여진다.

다섯채 가게를 모조리 태운 이튿날 저녁에 은이가 집으로 달려왔다. 재형이가 전화를 했더라. 이야기를 듣는 길로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리고 곧 불이난 차초지종을 물었다. 다시 생각하기도 말을 꺼내 이야기하기도 내키지 않았지만 차근

차근히 불이 난 경위를 알려주었다.

“언니, 생각나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나하고 공동묘지를 홀랑 태웠던 일.”

은이는 모처럼 웃을 일을 찾아낸 듯 잠깐 웃어댔다.

“뒤, 그때 그불 우리가 낸 게 아냐! 틀림없이 발로 다 비벼 끄고 집으로 갔었잖아. 아무리 손바닥만 하게 불장난 좀 했던게 그렇게 번졌잖니.”

나는 그제나 이제나 막두가내로 내말이 옳음을 굳이 내세웠다.

“또 공동묘지 근처라 도깨비불이 번진거라고 어거지 떼를 쓰려구, 언니.”

은이가 이쯤 나오면 나는 입을 다물어 두는 것이 더 쉽다. 도무지 옛일이라 아승아승하기만 하니 말이다.

“그때 어찌던 불씨 한개가 잔디 속에 숨어있다가 차츰 불을 붙여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지!”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여기 이것 반아두어. 화재보험증서야.”

나는 무심코 받아 들었다. 첫 보험금을 넣기 시작해서 9회분까지 꼬박이 들어가있는 화재보험증서였다. 도톰한 두께의 손바닥크기 보다 좀 더 큰 보험증서는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었다.

눈 앞을 부우영한 눈물이 가로막았다. 안차게는 잘 참은 눈물이 솟아나왔다.

“기집애가... 당돌하게 재서 언제 나 나는 네 뒷켄이나 지키는구나!”

나는 눈물반 웃음반으로 은이의 손을 꼭 그러쥐었다.

은이가 아주 오래전에 내게 함께 보험에 들자는 얘기를 비춘 일이

있기는 했다. 가정살림이 좀 어려운 친구가 보험외무를 시작했는데 도울셈도 되니 들어두자고 했다. 또 기일이 차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으니 좋지않으냐며 내 뜻을 물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컷등으로도 듣지 않았었다. 도무지 어리석고 실속없는 짓이라고 단정을 내렸었다. 정말이지 내게는 결코 먹혀들만한 소리가 아니었다. 기껏 이런 말로 쏘아부치거나 했다.

“애, 넌 모를테지만 말야, 생명보험들던 죽고 싶다더라. 화재보험 들면 아마 불나고 싶을걸!”

그후 얼마동안 나는 정말이지 용의주도 하고 만만찮은 주부이다 싶은 콧대를 세우고 있었다. 보험이라는 것에 대하여 더 알고고도 하지 않았었다.

동생 은이는 지난봄 의사인 남편을 따라 아이들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꼭 돌아오겠다고 하며 떠나갔다. 언니인 내가 뒷편이나 지키게 어렸을때 부터도 매사에 안목이 넓던 동생은 그때 우리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었던 것이다. 가끔 은이에게서 글이 부쳐져 온다. 보내오는 글마다 동생같은(?) 언니를 염려하고 보고싶어 하는 글귀이다.

재곤이는 큰인쇄소를 다시 꾸렸고 재형이는 대학 졸업반이다. 또 남편은 주말이면 낚시를 떠나곤 하는 예전의 버릇이 되살아났다. “왜 엄마가 전에 무얼 보았더니, 언니한테는 火氣가 따라 다닌다고 하지 않았수?”

동생 은이의 하던 말이 떠오른다.

글썸다. 화기라는 것이 내게 어떤 형태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유별나게 무엇을 태우기를 좋아하고 연깃내를 좋아했었다. 그것이 소소하게 피어오르는 화안한 소망같은 염원의 불꽃같아서 였다. 연깃내의 소박함하며.

나는 가끔 불이 나는 꿈을 꾸다. 세탁소의 화재사건이 난 이후부터이다. 불은 활활 일어 내 집 대를 보를 할기도 한다. 그럴때마다 나는 무슨 수를 내서든 불을 끄고서야 잠에서 깨어난다.

불이 나는 꿈은 길몽이라고 하던데……

삼가하여 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